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4호 【루계 제23316호】 주체99(2010)년 12월 30일(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호금도동지와 온가보동지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온가보동지가 년하장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년하장들을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공사참사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와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외교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단을 대표하여 츤 하이 잠보사왕 국명전권대사가 29일 박의춘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29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이란신문 《이란뉴스》 6일부가 보도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방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회령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산덕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전한 심정을 안으시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돌아보시면서 어머님의 생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의 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 김일성주석께 끝없이 충직한 천위건사의 빛나는 한생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회령대성당배움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꾸린 제육반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로 건설된 회령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맞춤과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잘 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령고려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통적인 고려약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의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고려약의 치료효과를 높이자면 경정적으로 고려약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여 약을 액스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회령시를 돌아보시면서 회령시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앞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무산식료공장, 단천마그네사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항전설장,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 함흥수리동력대학, 통성기계련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로씨야, 체스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회천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는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는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돌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작기계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회천발전소건설장과 회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회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일대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급격히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소들을 도처에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회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최신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청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호를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최신식전기계통들을 만들어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애국에 불타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한강한 의지력으로 기계제작공업을 단연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렸다고 하시며 이것은 선군시대에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통폐지들인 신화망, 환구망과 로씨야의 쁘라브다—따쓰통신, 체스꼬주재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제스꼬조선신선회 인터네트문통폐지 《조선—백두산》도 우와 같은 소식들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선의 선군정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선의 선군정치》라는 주제로 우간다주재 사상연구조직들의 전국토론회가 22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아르헤카지역 주재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이며 주재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바구마 이오제를 비롯한 주재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 참보고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보고종합대학 심리학부 교원들의 주재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우마 우주루는 토론회를 사회하면서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주재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인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전국토론회를 진행하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였다.

바구마 이오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영생불멸의 주재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주재사상과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위력을 힘있게 과시

올해 1만 3 500여개 단위가 청년전위모범단체 쟁취, 연 200여만명의 청년들이 돌격대활동에 참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강성대국선설대전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킬데 대한 당의 전투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각지 청년들이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치던 력사적인 대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의 긍지높고 영예로운 새 세대들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 우리의 청년동맹은 수령결사옹위의 사상관철계획을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로 청년들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당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올해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을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조직으로, 생기발랄하고 살아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왔다. 또한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사상생활지도를 빈틈없이 짜고돌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신하게 벌려갔다.

각지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청년전위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공정과 계기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계급교양, 준법교양 등을 짜고돌아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꽃으로, 강성대국건설과 반제반미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없이 짜고돌았다.

이 나날에 학원기계련합기업소 학원산소분리기공장 초급위원회, 서흥군 법안협동농장 초급위원회를 비롯한 18개의 초급청년동맹조직이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통성영예군인사솔장화공장 초급단체, 함흥제분공장 제분작업반 초급단체를 비롯한 5 800여개 단위가 한급 높은 청년전위모범단체로 자랑났으며 7 700여개 단위가 청년전위모범단체대렬에 새롭게 들어섰다.

우리 청년들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옹위정신이 높이 발휘되였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집체 청춘을 바쳐가는 고상한 미풍이 더욱 활력있게 펼쳐졌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가슴깊이 간직한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최전연초소에 달려나가 혁명의 총대,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였다.

올해 경제강국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억센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연 200여만명의 청년들이 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 현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을 빛내일 일념을 안고 탄광과 광산, 발전소건설장과 협동농장에 진출하였다.

경공업과 농업, 4대선행부문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였다.

경공업부문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올해 계획된 인민소비품을 일떠, 월월, 지표별로 무조건 생산보장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갔다.

농업부문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폐기없이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4월과 9월에 통천군의 청년전위들이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당면한 영농전투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림것을 호소한데 호응하여 각지 시, 군의 수많은 초급청년동맹조직들에서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청년돌격대활동과 사회주의경쟁을 진행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또한 수백개의 련관부문 공장, 기업소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1만 수천명의 청년들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줄기차게 내밀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의 초급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수많은 청년들로 청년돌격대활동을 벌려 철강재생산을 늘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청상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과 수십개의 대규모 및 중소규모수력발전소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청년돌격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석탄, 기계, 화학공업, 철도운수부문에서도 청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갔다.

이밖에도 중앙과 도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해당 지역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를 가지는 공사대상들을 맡아 완공하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150여청년의 새기술을 찾아내고 해성강 6호발전소, 운흥강 3호발전소를 비롯한 50여개의 공사대상들을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회천발전소건설에서도 는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정초 평하 30℃를 오르내리는 사나운 혹한을 뚫고 회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년건설자들은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지난 9월 연계개통수로터널공굴막이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1호발전소 조기조업을 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지금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청춘을 빛나게 살는 혁명적인생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시대의 영웅, 위훈의 창조자로 삶을 빛내여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인민적보건시책에 의하여 받아안은 혜택

올해에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광천료양의료봉사를 받았다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의하여 올해에 나라의 광천지대들에 새워진 수많은 료양소들에서 의료봉사가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김정숙료양소, 강서료양소, 시중호료양소를 비롯한 각지의 료양소들에서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광천물리치료수단에 의한 의료봉사를 받았다.

보건성이께 광천료양소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이께 수십개 광천료양소들에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온천과 약수, 감광등 자연치료수단들과 전기, 광선, 초음파 등 인공물리치료수단들에 의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을 증진시킨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보건시책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약수와 온천지대를 잘 관리하여 약수와 온천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이름난 광천지대들에 일떠선 많은 료양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이 누구나 광천물리치료수단에 의한 의료상방조를 받고있다. 이것은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받아안는 특전이고 특혜이다.

올해에만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여차례에 걸쳐 광천지방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더 잘 리용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실천을 위한 방향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보건성과 료양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각지 료양소 의료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양하면서 료양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온천과 약수, 감광을 비롯한 자연치료수단들과 인공물리치료수단들을 근로자들의 륜단현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

보건성이께 김정숙료양소, 탄천영예군인료양소, 세천영예군인료양소에서는 라돈이 함유된 질좋은 온천을 리용한 온몸욕치료와 물속당기기치료, 물리치료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회복증진시켰다. 시중호료양소에서는 치료효능이 좋은 시중호광탕을 덮어 감광욕과 찜질, 감광전기치료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회복증진시켰다. 강서료양소와 옥호등료양소에서는 질좋은 약수를 리용한 의료봉사를 실속있게 벌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갈산로양소, 울산료양소를 비롯한 도, 시, 군인민위원회이께 수십개의 광천료양소들에서도 광천자원을 적극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갔다.

구장군 신흥약수료양소에서는 군당군위원회 관리와 방조속에 료양소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이곳을 찾은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12월의 명전 날씨조건에서도 이곳 료양소의 창가마다에서는 근안의 대종리와 중초리, 백평리 동지에서 온 료양생들이 이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탄천영예군인료양소에서는 많은 영예군인들이 료양기간이곳 의료일군들의 정성이 깃든 생일상까지 받아안았다.

각지의 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에 비하여 더욱 훌륭히 꾸려진 료양소들에서 수준이 훨씬 높아진 광천물리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증진시켜가고있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오 현

년간계획을 빛나게 수행

풍곡탄광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풍곡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에 지난해 대고조전투과정에 최고정신수준을 돌파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매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의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갔다.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세찬 공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서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려갔다.

탄광창모부에서는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1갱, 2갱, 3갱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탄광에서는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결과 1갱을 비롯한 진반작인 갱들에서 권양기들의 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석탄생산과 운반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계획수행기간 탄광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전투를 벌리면서 동발나무를 비롯하여 갱들에서 더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1갱의 탄부들이 뜻깊은 올해 전투에서 투쟁한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갱장을 비롯한 갱의 초급일군들은 총공세의 요구에 맞게 생산조직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매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로 탄부들을 불러일으켰다. 갱의 중대와 소대들에서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사업이 그 어느 단위보다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정초부터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계획수행기간 탄광에서는 경별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러하여 갱, 중대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2갱과 3갱의 탄부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밑거진 전투목표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이 경들에서는 현행생산을 줄기차게 내밀면서 굴진을 앞세워 전망이 좋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에 탄광에서는 탄부들에 대한 후방물금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 대중의 드높은 증산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려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다음해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사리원대성피혁공장에서— 리 진 명 찍음

정 론

진격의 나팔소리 더 힘차게 울리라

승리를 떨쳐온 공훈국가합창단의 군가장정을 더듬으며

백두의 혁명군가가 천만의 심장을 울어 잡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행장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12월경축음악회》는 지금 커다란 충격과 격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과시하며 혁명의 노래로 강하고 노래로 승리해가는 조선의 본때, 조선의 영웅기상을 보여준 공훈국가합창단.

우리 조국의 커다란 자랑인 합창단의 혁명군가와 함께 우리 얼마나 많은 시련의 험난한 언덕들을 넘어왔으며 우리 얼마나 가슴벅찬 승리의 년대기를 새겨왔던가.

조국이 대비약의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때에 천지개벽의 울린 공훈국가합창단의 《12월경축음악회》는 고난의 사선천리를 헤쳐온 승리와 추억의 메아리이며 휘황찬란한 미래로 더 용기백배하여 들진하게 하는 신념과 진공나팔소리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심장의 불길인 합창단의 혁명군가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혁명은 무적불패,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기록하게 될것이며 이 강위력한 보증이 있어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1)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력사적인 첫 합창음악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 열다섯해가 되는 때에 위대한 장군님을 100번째로 모시고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만장을 전율없는 흥분과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공연의 막이 열리는것과 함께 이름할수 없는 추억을 불러오는 장중한 선률의 울림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걸어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더듬어보는 소개자의 뜨거울에 젖은 목소리,

누구나 합창단의 영웅적군가장정의 자욱자욱을 마음속으로 밟아보며 심장의 피가 끓고 눈물이 핑돌이 젖어드는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끓없이 파도치고 물결쳤을 그 만단의 회억과 승엄한 세계는 참으로 얼마나 강렬한것이였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넘치시여 벌써 100회가 되였는가, 지난 15년동안 공훈국가합창단은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그 력사의 나날들을 정말 잊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단순한 예술단체가 아니라 혁명적인 군가로 천만군민을 선군혁명총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선군혁명의 나팔수입니다.》

15년과 100회!

너무도 성스러운 장정이여서 말만 외워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마치도 붉은 화살표가 수없이 뻗어간 승리의 로정도를 보듯이, 장엄한 서사시의 구절구절을 새기듯이, 정예사단의 로연서린 전투기록을 읽듯이 이 력사의 갈피를 우리는 쉽게 읽을수 없다.

피는듯의 해를 보내고 맞이한 첫해의 12월 24일,

시련의 장막이 짙게 드리웠던 이 땅을 흔들어 깨우며 전해없는 합창음악회가 열렸다.

《승리의 열병식》, 《부강조국 만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높이 들자 붉은기》, 《천만이 총폭탄되리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고난의 행군정신과 붉은기사상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공연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합창단은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총폭탄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우리 혁명무력의 나팔수이다, 우리의 노래는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로, 천추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로 될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그날의 때아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의 진군가를 힘차게 울리며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걸어갈 조선의 의지를 선포한 장례한 웅악포성이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15년, 피눈물의 바다와 포성없는 전쟁의 준엄한 전구들을 지나 오늘도 계속되고있는 선군혁명의 진군길에서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어느 하루도 이 노래가 울리지 않은적 없었다.

불꺼진 도시와 마을을 지나 철령을 넘으실 때에도 그이의 야전차엔 혁명군의 노래가 울렸고 강계정신의 불길을 지피시며 북방선리길을 달리실 때에도 항상 함께 자강땅을 밟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우실 때에도 이 노래로 힘을 얻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을 분쇄있게 족친 승리의 회멸을 가슴벅차게 느끼실 때에도 이 노래가 귀전에 울려오시였다.

사생결단으로 헤쳐오신 그 길이 너무도 생생히 어려와 한구절 들으면 격정에 가슴이 후려쳐지기도 하시고 다시 또 한구절 들으면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시던 사연깊은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가 그처럼 만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바로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력사가 생동하게 반영되여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확인하시였다.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전세대들이 고난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이겨냈는가 하는것을 두고두고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

합창단의 노래에 실려온다.

우리 장군님 입당백군인들과 함께 합창단의 군가를 들으시며 열적의 신심을 부어주시던 전군정, 전승절들이며 선군으로 승리해온 20세기를 총화하시던 12월의 그날도, 또다시 합창단의 노래로 21세기의 진군로를 펼쳐주시던 새 세기 첫해의 그 아침도 어려온다.

하루에도 몇번씩 허허벌판을 돌라메면서도 쌓이 아니며 입감을 더 달라며 불같은 가슴을 헤치던 자강땅 로동계급의 모습도 여기에 있고 단 1년동안에 부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병손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 미여운 장병들의 얼굴도 여기서 다 보이며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호느껴울던 군인가족들도, 백두산기슭에 천지개벽을 안아온 백두대지의 청춘들과 사회주의술 경이 억세게 고동치게 한 성강과 김형, 라남과 박천, 태천과 천산 등 이 나라의 유명무명의 위훈자들의 피땀어린 자욱과 불멸의 군상이 이 노래와 함께 파도쳐럼 굴이쳐온다.

혁명군가와 함께 오늘도 회천땅이 전하는 감동어린 이야기.

강계의 눈보라를 헤치며 강행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장에 차오르는 격정, 로동계급에 그처럼 하고싶던 말을 합창단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로 장엄하게 울려주시였다.

이 감격적인 화폭이 10년후 자강땅에 또다시 펼쳐졌다.

두해전 12월의 그날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감회깊다, 내가 회천에 와서 동무들과 함께 합창단노래를 들던 때가 잊그제같은데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승리의 전격로를 열어놓은 믿음직한 나팔수였다고 가슴뜨거운 회억의 말씀을 하시였다.

합창단의 한회한회의 공연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길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걸어온 길이며 조선혁명이 폭풍서 전진해온 한걸음, 한걸음이였다.

《동지에의 노래》를 합창하며 열화와 같은 정을 나누고 《신심드높이 가리라》의 힘찬 선률과 함께 단란들과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승리의 길》을 성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한 이 혁명을 우리 장군님 따라 승리렬차선은 선군혁명천리만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의 노래높이 고난의 행군길에 울렸고 《강성부흥아리랑》의 장중한 울림으로 고난의 행군의 승리를 선포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은 노래 《변이 나는 내 나라》와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부르며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총대와 함께 군가를 울리며 기어이 만난을 박차고 솟구쳐오른 이 위대한 선군승리의 15년을 우리는 혁명의 노래로 승리해온 영광의 천만리, 영웅적군가장정의 불멸의 년대기라고 소리높이 웨친다.

군가의 의미가 달라졌다.

모험적인 군인기질과 정복정신을 키우기 위해 군가가 생겨났다는 고대시기로부터 세월은 수없이 바뀌였다.

군대의 전투행동과 생활을 주재로 한 군가는 군대의 기강을 돋구고 전투사기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쏘도전쟁시기 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한 붉은군대의 노래 《정의의 싸움》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군가의 위력은 비길데없이 커졌으며 그것은 혁명과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포연이 자욱한 전장과 혼령장에서 군인들의 사기와 기세를 돋구어주는 노래라는 의미만으로는 우리 혁명군가의 심원한 본질과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다 말할수 없게 되였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대변하고 당과 조국의 열렬한 호소를 그대로 울려주는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엄숙한 요구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갈 길을 내다보게 하며 그것으로 하여 더욱 큰 힘과 용기를 가다듬게 하는 귀중한 사상적방식이며 혁명의 무형한 행진곡이다.

어제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무려 100회씩이나 보고 또 보시였는가, 무엇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너무나도 잊을수 없는 노래들이건만 들을 때마다 힘이 솟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리도 격동을 금치 못하시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조선의 기상이 드넓게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쳐 반복하게 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다.

군가의 위력은 참으로 무한대한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안아온다.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 병사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여 그것을 승리의 불길로 높이 추켜올렸다면 합창단의 입당맹가수들은 바로 자기들의 노래로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나래치게 하고 시대의 정신으로 타오르게 한 선군혁명의 제일기수들이였다.

합창단의 군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정빙한 사람들이 조국과 혁명을 초석처럼 받드는 시대의 영웅들로 자라났던가.

우리의 날개우에 대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솟으며 백한 길영조영웅, 정양하늘을 우러러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목청껏 합창하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서해의 13명용사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꿈결에서도 부르며 별주먹과 동짓으로 청춘로탄을 열어나간 청년영웅도로전설자들, 그러음의 눈물어린 대합창을 펼치며 위훈을 세운 개천-태성호물길전설자들…

제국주의의 힘의 정치와 강권에 종지부를 찍을 위대한 힘의 출현을 엄숙히 선언한 선군시대는 강위력한 총대와 함께 총대처럼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을 무수히 낳았다.

우리는 지금 혁명군가와 함께 도래한 하나의 위대한 새시대, 새로운 인간들의 한생을 보고있으며 그 장엄한 격류를 벅차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와 용감한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합창하는 노래만이 참된 혁명군가이며 이런 노래는 거창한 시대를 환생시키고 그 격렬한 대파를 승리의 대단애로 돌기차게 떠밀어 있는것이다.

저 백두밀림의 항일전장에 불멸의 군상으로 서있는 상지연대기념비의 전격의 나팔수와 같이 합창단의 가수들은 오늘도 원쑤격멸의 별찌산행진곡, 백두산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천만군민을 고무하고있으며 조선의 기개를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2)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에는 조선의 혁명방식, 백두령장의 승리의 철학이 있다.

조선혁명은 어렵게 백전백승하여왔으며 무엇으로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가.

우리세계는 백두산총대와 함께 인간의 사상과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무진막강한 만능의 무기—혁명군가가 있다.

혁명군가!

력사에도 없었고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혁명사업에 새기게 된 이 힘있는 언어에 깃든 심원한 원리와 위력은 과연 무엇인가.

혁명군가로 승리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음악정치의 구현이며 조선의 특출한 혁명방식, 승리방식이다.

백두산천리수해의 설레임소리같은 합창단의 장엄한 곡조를 들으면 우리 수령님이 고시지면 별찌산대오의 사상과 정서가 온몸에 파도쳐온다.

혁명적인 노래는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사생결단의 혈전속에서 《반일전가》, 《사향가》와 같은 노래들을 천히 지으시며 백두밀림에 혁명의 노래가 빠 차넘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의 토소리가 들려오는 음산한 거리로 천위중대원들이 신심과 용맹이 용솟음치게 하는 군가행진을 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친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수령님식대로 혁명해나가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군가정치에는 노래를 혁명의 무기로 내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계승발전시키신 조선식음악철학의 숭고한 세계가 집약되여있다.

고난의 행군의 전격로를 열어나가시던 간고한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뜻은 말씀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혁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적들과 끝까지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세계는 조선식철학, 조선식음악철학이 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과 혁명적열정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과 전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노래없이는 혁명도 전설도 할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노래는 혁명의 무기이며 추동력이라는 드높지 않는 혁명철학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혁명군가를 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울리시였다.

인간의 사상과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데서 군가만큼 위력한 무기는 없다. 혁명군가의 위력은 바로 그것이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인집단의 노래라는데 있다.

용감과 화선에 선 군인처럼 계급적신념이 투철하고 명예한 사람이 없다. 총창을 비껴들고 돌격하는 병사가 지닌 심장처럼 드넓게 흘러는 애국의 심장은 없으며 화선에서 나누는 병사들의 전우애처럼 열렬하고 진실한것은 없다.

군가를 혁명의 보정으로 틀어쥐신것은 강철의 명장이신분이나라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시며 뜨거운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독창적인 혁명방식이며 오직 조선에만 있는 위대한 화폭이다.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며 우리 인민들은 이처럼 곤난한 때에 내가 제 항상한의 음악을 즐겨 들으며 힘을 얻고 항상한과 함께 인민군부대들을 찾아가는지 꼭 려해할것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혁명의 중하를 안으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합창단에서 형상한 노래들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흘흘한 노래가 한번 나올때면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신 한없이 친근한 스승,

혁명의 넋을 지닌 가수가 되도록 선군장정의 길에서 전선바람, 총대바람도 안겨주시고 조국의 숨결을 호흡하도록 로동계급과 인민들속에도 세워주신 그 자애로운 손길,

그이의 합창단지도일지를 펴으면 그대로 음악의 대백과전서가 되고 그이의 사랑의 력사를 합치면 그대로 바다를 이루며 그이의 의도를 그대로 담으면 위력한 노래로, 음악포성이 울린다.

군가는 노래이기 전에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불길이였다.

우리 장군님은 혁명을 어떤 판직이나 화려한 연설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하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는 혁명을 이끄시여도 한들을 서슴없이 내대여 진격로를 여시고 동지애를 나누어도 심장의 피를 나누시며 인민을 사랑하시여도 온넋을 바쳐 사랑하신다.

합창단의 군가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울림으로 시대를 움직이고 천만대오를 이끄는 혁명의 회성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사생결단의 선군길에 오르실 때에도 혁명군가로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선언하시였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실 때에도 다름아닌 혁명군가를 울리시였으며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는 그 마음속엔 군위가수들의 노래를 들으시며 천백배로 굳히시였다.

피는듯을 삼키시며 온갖 슬픔을 감당하셔야 할 때에도 조용히 혁명군가를 부르시며 불멸이길이 알어서시였고 저 멀리 려명이 밝아오고 승리의 메일이 울려올 때에도 다시금 이 노래로 피끓이시면서 빈영의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 한편한편의 노래들은 그대로 그이의 심장의 호소, 그이의 승리의 선언, 그이의 전진의 강령이였다고 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군가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이와 더 가까와졌으며 그 노래에서 장군님의 사상과 당력을 알고 그이의 리상과 포부를 보며 그이를 따라 승리와 창조의 천리를 걸어왔다.

100번 보면 100번 다 머리가 저튼해지고 새힘이 용솟음치며 혁명의 길을 더 억세게 달려나가게 하는 혁명군가의 커다란 강화력과 불멸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이신 우리 장군님의 인간세계, 혁명세계를 탑고있는것으로 하여 합창단의 노래는 그 어떤 황홀한 음악에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무한한 강화력과 전진력을 가지는것이다.

수령의 세계를 환력하게 체현하고 완전무결하게 그 노래말을 아는것이야말로 백두산위인들의 숨하에서 배우며 성장한 공훈국가합창단 특유의 면모이며 비상한 실력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고고성을 울리고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합창으로 선군승리의 포성을 울린 공훈국가합창단,

세기를 이어 수령의 노래로 천만심장을 틀어잡고 그 노래로 온 지구에 사회주의 만세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는 공훈국가합창단은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백두군가합창단, 영광스러운 최고사령관합창단이다.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를 더 높이 울리며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자,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날리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저 멀리 《E. C》의 언덕에서 한별의 노래와 함께 첫걸음을 뗀 우리 혁명, 백두의 설한풍 헤치며 억천만번 축여라도 천추를 치자면 별찌산노래와 함께 도도히 굴이쳐온 우리의 행군길은 광활한 미래에로 뻗어있다.

우리 앞길에 휘황찬란한 표대가 나붓기고있다.

선군으로 승리해온 우리 당은 오늘 자기의 붉은기에 인민생활향상, 경공업의 새로운 박차, 강성대국의 최후승리라는 새로운 화살표를 그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신 지침적인측경계의 토대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최첨단으로 나래쳐올라 현대공업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야 하며 하루빨리 사회주의 루른 하늘아래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요람대라를 펼쳐야 한다.

제국주의와의 조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창조와 번영의 대전세에도 승리해야 하는 우리세계는 혁명군가가 더 높이 울려야 한다.

군가는 천추의 아성을 돌부시는 드세찬 폭풍이며 창조와 번영의 회장찬 나팔소리이다.

력사는 군가로 천추와 싸워이겼듯이나라 군가로 인민의 번영을 창조한 이런 군대와 인민은 기록하지 못하였다.

군가의 위력은 무한대이며 이것은 곧 조선의 자랑, 조선의 힘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에서 우리 혁명을 이끄시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으며 여기에 필승의 기치인 혁명군가가 더 우렁차게 울려고있는 한 조선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으며 언제나 이긴다.

백두산정예항장단의 군가와 함께 선군승리의 번영기가 펄럭펄럭이 주체혁명의 찬란한 미래도 군단로의 일제사격과 같은 혁명군가의 피성과 머물어 끝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백 룡

산골농장들에 수놓아진 거룩한 자욱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2월 모처럼 마련된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고 산골농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서흥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여러 군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12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날에 걸쳐 황해북도의 여러 산간지대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먼저 서흥군의 외진 산골에 위치하고있는 송월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피살자가족의 집에 들리시여 집주인과 오랜 시간에 걸쳐 담화를 하시며 이곳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집주인과의 담화과정에 이고장 농민들의 생활형편이 그리 넉넉치 못하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이제 1~2년안에 농민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 대책을 취해야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황해북도에 내려오신데는 사연이 있었다.

새해 정초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그이께서 며칠동안 휴식할데 대한 결정을 제때하였다.

이렇게 되여 도에 내려오시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신 다음날부터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시기 위해 이처럼 서흥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외진 산골농장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송월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자작리를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농장에 또다시 모시고 귀중한 가르침시을 받아안게 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였다.

바로 그해 1월에도 한겨울의 엄한 추위속에 눈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농장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12월에 농장을 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인이 농장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추게새우자면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농장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서흥군의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시고 저녁무렵이 다되여서야 숙소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의 불빛은 밤깊도록 꺼질줄 몰랐다.

다음날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산골농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계속되였다.

일군들이 그이께 잠시나마 휴식하실것을 여러번 말씀드리였지만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농민들의 생활이 피이지 못했는데 벽날을 휴식한들 마음이 편안하겠는가고 하시며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서흥군에 이어 린산군과 온파군의 여러 산골농장들을 돌아보시며 매 농장들의 경지면적과 정당 수확고, 국가계획과 수매계획, 농장원들의 분배몫을 비롯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황해북도당 및 행정경제기관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이제는 공업의 기초가 축성된 조건에서 농촌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산골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제때되였던 어버이수령님의 휴식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은 집행되지 못하게 되였다.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자욱은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에도 이렇게 끝없이 이어졌다.

지금 서흥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잊지 못할 12월의 그날과 더불어 자기들의 고장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수령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기며 답사행군길을 다그친다.
—상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대흥군 평화리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당보학습을 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고있다.

얼마전 농사차비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일군은 당보에 실린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독보한 후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치자고 호소하였다.

리당일군의 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으며 그들이 그날 맡겨진 계획을 철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조 자 룡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함흥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사랑의 장정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뜻깊은 한해의 마지막나날들이 흘러가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올해전투를 자랑스럽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지난 12월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함흥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토론제급도 이해의 마지막나날까지 잡일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잊지못할 영광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12월초 함흥시의 경공업공장들을 찾아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백운산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연혁사의 갈피갈피에는 당과 수령의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었다.

몇소 공장을 찾으시여 생산한 제품들도 보아주시고 기쁨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당과 류들을 생산하여 공업도시 함흥시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전하며 몇년전에는 기초식품생산공장을, 오늘에는 종합적인 식료가공품생산공장들을 갖춘 공장의 자랑찬 전변의 력사도 함축되여있는 연혁소개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추억에 잠겨 연혁소개실의 사진자료들을 보아주시고나서 새로 꾸린 생산전초로 향하시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공장의 토동계급은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이 전초를 종합적인 식료가공품생산기지로 변모시키였다.

생산전초안의 제품진렬실에 전시된 수십가지 식료가공품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제품을 들어보시며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인민들이 그 식료가공품만 요구한다는 공장일군의 대답을 굳게 해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기본 마음으로 상표도안실, 분석실을 거쳐 생산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력, 국수생산공장 그리고 사랑생산공장에 이어 빵생산공장을 들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독 원료는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 순간 빵원료보장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도의 책임일군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질좋은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친부모의 그 다심한 사랑에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생산공장들을 돌아보시고 마당가에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이 합흥시 토동계급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도와 공장의 일군들은 갖가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인민들에게 전해갈 마음속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현지지도길은 이날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로 뜨겁게 이어졌다.

몇해전 현지지도때서 주신 영예로운 파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게 된 이곳 일군들은 공장의 전체 영예군인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렬된 빤딸의 종류도 가늠해보고 고된 녀자수제빤딸도 들어보시며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색갈도 형태도 다양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에게 이런 신발의 세계적인 생산실태도 물어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에는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발들을 손수 들어보시며 무게와 색갈, 형태 등을 세심히 가늠해보시였고 신발의 질제고에서 물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서야 공장을 떠나시였다.

백운산종합식료공장과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토동계급은 영광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힘있는 혁신을 장조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현지지도의 길에 펼쳐진 사랑의 화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의 긍지, 인민의 자부심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정싸달의 질을 가늠해보시며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싸달생산공정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진렬대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싸달견본들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견본품들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연성싸달을 드시고 그 형태와 색갈을 구체적으로 헤아려보시였다. 그러시다가 동행한 녀성일군들을 부르시며 싸달을 한번 신어보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시였다. 녀성일군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수정싸달을 신고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나섰다.

그들이 신은 싸달의 형태를 가늠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번 발을 디디여보라고, 신발이 좋은가 나쁜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녀성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싸달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며 또다시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뜻깊은 이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러자

편시

못 잊을 2010년의 사계절이여

김석주, 장명길

눈 내리는 날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속으로
이해도 저물어가는가
끝없는 추억의 세계로
우리 마음 이끌어가는 송년의 눈

1년이라 365일
하루같이
인민을 위해 걸으신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머 멀고 머 넘어진 2010년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일지를 펼치고
그 하루하루를 추억의 침묵처럼 밟으며
우리 마음 달려가노라
떠나온 정초의 그날로

장군님 찾으셨던 그날처럼
지금도 눈이 내리겠지
저 멀리 통림의 산발과 평길에도
희천의 이야한 언제우에도
눈은 내리고 내려쌓였겠지

이해련 유달리도 많이 내린 눈
장군님어깨우에
그리도 많이 내렸던 정설의 그 눈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한해가 다 저물도록
어이하여 이 가슴에 그냥 남아있는것이냐
녹지 않은 만년설인듯

눈보라 사나운 평림의 산발
특설이 쌓인 희천의 평길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가벼웠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

오신 길은 천리눈길
서계신 곳은 영하 30℃의 혹한속
조국과 인민앞에
새해첫군의 첫길을 열어주시는
그이의 야전복 옷깃엔
성에가 하얗게 붙혀있었다

그 모습을 우러르며
뜨거움에 눈굴을 적시던 병사들
자나깨나 안녕만을 바라는 그이께
바람한 한지에서 설인사를 드려야 했거니
—어버이장군님
새해에 부디…

목이 팍 메여서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며
제 드리지 못한 인사
천마디 만마디여도
다 드리지 못할 그 축원

솟아오르는 언제며
눈덮인 산발이며
온 희천전역이 허친 격정의 메아리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단란한 가정의 지붕아래서도
흥성이는 연회장에서도 아닌
눈바람부는 희천의 언제우에서
축원의 인사를 받으신
우리 어버이

새해가 오면 먼길 떠났다가도
집에 들아와 자식들의 설인사를 받전만
오히려 집을 떠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자식들을 찾아가신 어버이

그 걸음으로
끝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길우에서
새해인사를 받으시지 않았더냐
함박눈 내리는 제평의 광구에서
땅크훈련장에서
폐성강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이렇게 2010년은 시작되였다
뜻깊은 이해를
승리의 해, 력사의 해로 빛내이자고
온 나라 군민에게 보내시는
장군님의 축복의 인사
따뜻한 고무로

이렇게 2010년의 사계절이 흘렀다
축원의 마음 장산에 물결치는
경사로운 2월에도
전눈까비 내린 새벽길을 걸어
비날론지구를 찾고 또 찾으시고
바다바람 세찬 이튿아침
탄철의 드넓은 구내길을 걸으시고…

그 자욕자욕 따라
화산처럼 분출하던 격전장들
눈바람은 세찼어도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으로
뜨거웠어라
이 나라 정이월이 뜨거웠어라

눈이여, 새해의 첫 아침부터
많이도 많이도 내린 눈이여
우리 장군님 넘고 헤치신
험산과 로고의 그 길이 있어
너는 만화이 주렴질
인민의 복눈이 되지 않았더냐

눈이 내린다
2010년의 마지막눈이 내린다
대경사들로 흥성이던 사계절
그 봄, 그 여름, 그 가을, 이 겨울을
옷 잊을 추억속에 불러내며

아름다운 내 나라 강산
선군풍경으로 눈부시게 달라진 조국땅
우에
눈이 내린다
아, 장군님 생각으로
천만가슴 뜨겁게 하는 송년의 눈이여

봄 강 산

봄은
이해의 봄은
어디서 시작되였던가
산에 들에 올트는 새싹
연분홍 진달래꽃심에서인가

봄이여 너는 왔지
사나운 겨울의 눈바람을
자신의 옷자락에 다 안고 헤쳐오신
장군님의 그 자욕자욕에서
인민을 위한 열렬한 사랑의 그 품에서

너는 시작되였지
붉게서 꽃피운
비날론솜을 손에 드시고
환히 웃으시던 2월의 그날
장군님의 그 미소에서
너는 계절에 앞서
인민의 마음속에 찾아왔지

비날론의 봄!
고난의 눈속에 묻혀
사람들 기억속에서 멀어져가던
비날론솜꽃, 그 귀하디귀한 꽃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이 강산에 두번다시 피워주신
우리 장군님

이제는
수령님 넘쳐 흘어드리게 되였다고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믿고있던
리상이 절실을 옛게 되였다고
그리도 만족하게 웃으시던
비날론솜을 송용차에 싣고
그이께선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려가셨나니

그 천리길에
봄빛이 흘렀다
온 나라 강산에 봄이 설레이였다
비날론솜을 안고
그 먼길 한달음에 달려오신 장군님을
우리 수령님 반겨 맞으실 때

아, 태양의 미소 넘치는
조선의 봄이 얼마나 화창했더냐
온 나라가 대경사로 흥성거리며
기쁨에 웃고 환희로 설레던 꽃바다
자연의 봄이여
네가 피운 꽃보다 더 많은 행복의 꽃들이
이 강산에 아름답게 피여나지 않았더냐

봄이여
너는 어디서 올트고 꽃펴났던가
이 아름다운 봄을 인민에게 주시고
정녕 우리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였던가

평림의 산발넘어
토다시 찾으신 발전소건설장
발파가스가 채 빠지지 못한 《화선갱도》
펼어지는 석수를 맞으며
머리에 얇반이 닿을듯 한 천정
전기선이 어깨에 스칠것만 같은
그 물길굴 한끝까지 다 걸어보신
장군님

천만인민의 소원
만대를 이어온 숙망
다 풀리우시고 열매로 익혀주시려니
아, 우리 장군님
고생도 천만고생
로고도 천만로고…

우리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라
수령님 더 환히 웃으시라고
온갖 심혈을 다해
장군님 가꾸신 봄
그 봄이
수령님 바라시던 봄이였다

모란봉기슭에 밝고도록 넘쳐흐르는
청년공원의 유쾌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먼 산간도시에도 활홀히 펼쳐진 불야경
여기서도 저기서도 흥성이던 새집들이소식

커가는 북속에
사람들 얼굴마다 웃음꽃, 웃음꽃…
그 웃음꽃 만발해
이 나라 봄강산이 아름다왔더라

땅우의 봄을 통제로
하늘에 들어올렸는가
4월의 하늘에 터쳐오르던
축복의 불보라

비날론솜꽃도 피여있고
주체철폭포, 주체비료폭포도 쏟아지고

여 름 밤 이 야 기

여름밤은 짧더라
허나
장군님 전선길에 새기신
사랑의 이야기로
끝없이 길고길었던
못 잊을 그 여름밤들이여

전선길 전선길
이야기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던
장군님의 전선길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총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장군님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심장에 지니고
기나긴 20년세월 우리 따라 걸어온 전선길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위해
쉼없이 가고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이해에도 종군배낭을 메고 걸었더라
장군님의 그 자욕자욕 시월에 당으려
노배로 엮어 세상에 전하려

장군님 다녀가신 곳
멀고 가까운 조국땅 방방곡곡
우리 다녀온 그 많은 고장들
어디서나 들었더라
장군님을 만나뵈온 사람들의 이야기

여름밤은 짧다 하더라
허나 끝없는 그 이야기로 길기만 하면
6월의 어느 여름날 밤
남흥로동계급의 목메인 목소리도
우리 들었나니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장에 오신 날
쏟아져내리는 주체비로를
만족하신 눈길로 바라보신 장군님

아, 얼마나 기쁘셨으랴
언제가 대홍단에서
산처럼 쌓인 농마더미를 보시며
저것이 모두 비료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처럼 바라고바라시던 비료가
오늘은 폭포처럼 쏟아지거니

허나 어이 앉았으랴
로동자합숙식당에 들러섰을 때
잘못 정해진 몇g의 소금함량곤에
그 기쁜 날
우리 장군님 그처럼 심려하실줄

—소금 10g이면 너무 짜지 않소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도
로동자들의 건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비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로동자들의 건강과 바꿀수 없소

한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 다 듣기에는
정녕 그날의 여름밤이 짧았더라
로동자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고젖고
그 이야기 적어가는
우리의 노배도 눈물에 젖고젖고…

아, 장군님 가시는 길 천만리라면
자욕자욕 사랑으로 이어진 천만리
갈수록 더해가는 사랑의 뜨거움을
우리 어디까지 따라가면 다 알것이냐

장군님 맞으신
희천단을 돌파한 CNC의 노배도 울리고
활짝 핀 웃음꽃도 만복의 열매도
다 새겨져있는 축포

하늘땅이 설레며 누리에 빛발을 뿌리던
조선의 봄
우리 장군님
그 봄을 그대로 꽃바구니에 담아
태양절에
수령님께 삼가 드린것 아니더냐

류다른 봄이였다
이 땅에 수수천년 사계절이 오고
이 땅에 수수천년 봄이 왔어도
이해의 봄은 정녕
류다르게 화창한 봄이였다

옴트고 꽃피는 계절에
행복의 열매를 주렁지운 계절
봄이여 너는
2012년 강성대국의 그 봄을
환희롭게 그려준 잊지 못할 봄이였다

송년의 눈이여, 우리 소원 전해다오

눈이 내린다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속으로
어느덧 2010년은 저물어가는데
못 잊을 추억을 불러내며
송년의 눈이 내린다

하늘가 저 멀리
가는 이해를 바래우려니
우리 마음 더더욱 간절하게
장군님품으로
어버이장군님품으로 달려가는구나

정월의 찬눈길을 떠난 그 길을
봄도 가고
가을도 가고
한해가 다 가는 오늘까지도
동지할 눈길을 헤쳐가시는 그이 생각

정초에 희천의 평길에서 맞으신 눈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12월의 눈보라를 헤치며
내 나라 최북단 철산봉에 오르시고
주체철이 폭포되는 김철의 용해장에서
지린경제의 대승리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

온 한해
이 땅에 이룩하신 대경사들을
다 안고오신 걸음
그리움인 오산덕
기다리시는 어머님앞에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실 때

하늘땅을 뒤흔들던
9월의 환호성
날마다 평길로 흥성인 한해를 안고오신
장군님을 맞이하신
어머님마음 얼마나 기쁘셨으랴

이해 첫 계절부터 마감계절까지
내 나라 내 조국을 이끌고오신 그 길에서
성에가 붙히고
비에 젖고 땀에 젖으셨던
장군님의 야전복자락 정길게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그 미소가 피워올렸는가

백살구 가지마다 환눈꽃 아름다운 12월
강계과 환희로 설레던 희평의 12월
어머님도 기뻐하시고
이해도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찼으니
이제는 강행군의 머장 풀으도 있으리라
우리 생각했건만

또다시 머나멀리 이어가신
장군님의 지욕한 자욕이여
하늘의 눈발은 멎을 때 있어도
온 한해 장군님 맞으신 눈
송년의 눈이 내리는 오늘까지
어이 우리 가슴에서 녹을수 있었던가

말하라, 또다시
어머니당대표자회에
영광의 꽃다발
축하의 꽃다발을 드림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전선과 전선에서 달려온 천만군민

인생에서 가장 뜻깊게 맞이한 계절이
었다
어버이장군님을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의 환호성
조선의 가슴속들을
더 높이 들어올리지 않았더냐

이 땅 이 하늘아래
조선의 미래가 더 창창히 열린 행운의
날이여
끝없는 그 기쁨 그 행복
만세의 함성으로 울려퍼지고
환희의 축포로 터져울랐더라

소원이 풀피여 더 푸르러진 하늘
기대가 이루어져 더 창창히 열린 앞날
오늘에 주렴진 열매도 풍성하고
보다 풍성해질 래일의 열매들도
가슴벅차게 안아보며 설레이던 이 강산

경사로운 나날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더들을수록 긍지롭구나
가슴넘의 알찬 이삭처럼
가슴가득 차넘치는 격정의 환희
경축의 광장에 물결치던 꽃바다여

10월의 광장에 다 펼쳐져있지 않았
더냐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일어선
선군시대의 천경만경이
동북산아에 새겨가신 그 자욕우에
붉게 타는 단풍들도
조중친선의 꽃바다에 설레이지 않았
더냐

이해의 가을은 정말로 가을답게
조국도 사람들의 삶도
풍만한 수확을 거둔 계절
한생의 추억속에
가지 않을 뜻깊은 계절

봄도
여름도
이 가을에 열매를 남기고 저물어
자연의 가을도
물이 지고
락엽이 지고
온갖 초목이 잠에 들건만

우리 장군님
사랑을 가슴마다 안겨주신 가을은
화창한 봄날처럼
푸른 희망의 세싹이 움터났고
무성한 여름처럼
크나큰 리상이 잎새를 펼친
신심넘친 활력의 계절, 전진의 계절

경축의 꽃바다에
누구나
인생의 아름다운 꽃송이를 없어놓았기에
여저 있으랴, 뜻깊은 이해를
아, 영광의 10월로 하여
2010년은 조국청사에 우뚝 솟아 빛
나리

오산덕에서 이어진 동해천리
단천과 라남의 구내길이여
평양에 와서도 끝나지 않은 현지지도길
이여
강행군으로 시작되고
강행군으로 저무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한해여

아, 송년의 눈
못 잊을 추억우에
간절한 소원을 얹어주며
우리 가슴속에 하염없이 내리는데

밝아올 2011년
새해의 봉화를 지펴주시며
또 어느 공장구내길을 걸으시는가
어느 초소의 평길
어느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시는가

1년 365일
눈이 올 때면
그 눈을 맞으며 가실 장군님 생각
붉게 쏟아질 때면
땀에 젖어 그 붉게속을 가실 장군님 생각
한해가 가도 끝나지 않는 장군님 생각

그이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흘러간 이 한해
인민의 복이 커갈수록
나라가 강성번영할수록
우리 가슴에 더 커가는 소원

하늘가 멀리 2010년은 저물어가도
우리 마음, 아 우리의 마음
한없는 고마움을 안고
다함없는 축원을 안고
어버이 계시는 곳으로 물결쳐가거니

내 나라 내 조국에
화창한 봄을 주시고
경사로운 여름을 주시고
환희로운 가을을 주시고
송년의 눈이 내리는 이 시각도
인민의 행복위해 전선길을 걸으시는
어버이장군님이시여

강사의 인사를 드리노라
온 한해 장군님 헤쳐오신
사계절의 그 자욕자욕에
평생의 노배를 드리노라
마중오는 이 나라 사계절의 날과 날들이
장군님 기쁨으로 가득차넘치게
불타는 우리 심장 다 바쳐가려니

오직 한분
자애롭고 친근한 우리 어버이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천년을 만년을 길이길이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간절한 소원안고
2010년은 저물어간다
아, 못 잊을 2010년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29일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티오피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평양 1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기트마 월데기오르기스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김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3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 기트마 월데기오르기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흉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조선인민이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며 쌍무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빛을 뿌리는 민족의 재부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의학백과전서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온지 400년이 되였다.

《동의보감》은 《탕약집성방》(총 85권), 《의방류취》(총 365권)와 함께 세계에 이름난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귀중한 국보적재부인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의 자랑찬 발전로정속에 민족문화유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려의학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고려의학은 우리 선조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창조하고 계승해온 전통의학이다.

민족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조들의 피나는 탐구와 노력은 수천년동안 계속되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동의보감》을 낳았다.

《동의보감》(총 25권)은 17세기초까지 우리 민족이 이룩한 고려의학의 발전성과를 집대성한 의학백과전서이다.

당시의 이름난 의학자였던 허준이 오랜 림상경험과 수백권에 달하는 국내외의 의학서적들을 참고하여 1610년에 편찬한 《동의보감》은 목록(2권) 과 내경편(4권), 외형편(4권), 잡병편(11권), 탕액편(3권), 침구편(1권)으로 구성되여있으며 거기에는 인체의 해부생리와 각종 질병의 진찰, 예방과 치료방법들이 체계정연하게 수록되여있다.

또한 방대한 파학적내용들을 다루면서도 병치료에 필리하게 약물, 침, 뜸 등 해당 질병들의 치료법과 민간료법들이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서술되여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의보감》을 출판하면서 서문에 당시까지 나온 의학책들의 부족점을 모두 보충하고 누구나 건강할수 있게 한 이 책을 널리 보급하여 천하보배를 온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한 나라의 학자들은 《동의보감》은 동방의학의 유일한 백과전서로서 동양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는것도 고 절한을 아끼지 않았다.

술기로은 우리 민족의 의학유산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발전에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민족애에 떠받들려 《동의보감》은 고려의학백과전서로 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1960년대초에 우리말로 된 도서가 출판되였으며 그후 원문 총 25권을 5분책으로 갈라 번역한 《동의보감》이 주체71(1982)년에 새로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의학고전의 풍부한 내용을 현대의학에 대해 세워주시였으며 고려의학과학연구사업계획을 정연하게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고려의학의 연구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에 고려의학과학연구와 치료의 전당인 고려의학과학원을 건설하도록 배려시고 고려치료방법을 보다 과학화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이렇듯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동의보감》뿐아니라 《어의촬요방》을 비롯한 많은 의학서적들이 발굴수집되고 그것을 정리 및 복원, 번역하는 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분렬과 대결의 장벽은 제거되여야 한다

외세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군사파쑈세력이 콩크리트장벽을 쌓은 때로부터 31년이 된다. 콩크리트장벽은 독재가 낳 조선반도의 허리를 휘감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는 천한의 장벽이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경계선을 상징하는 일정한 차단물들이 있지만 남조선의 콩크리트장벽과 같이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을 두동강낸것은 없다.

콩크리트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다.

31년전 당시 남조선의 군부독재세력이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것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북남대결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겨레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민족의 분렬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은 역적들의 죄악으로 하여 5천년의 력사를 창조하여 대대로 함께 살아온 단군민족의 지력이 잠겨졌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통일적발전의 필요적조건도 무참히 파괴되었다. 혈육들이 생리별의 한을 풀지 못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에 들려져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동족사이의 대결과 전쟁준비에 소모된 불행과 악순환의 력사가 이 천한의 장벽에 새겨져있다. 북남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또 얼마나 엄중한 지에를 받았는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을 불리적으로 차단하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의 존재야말로 민족의 수치이다.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콩크리트장벽을 쌓은 반통일세력의 범죄행위는 천추를 두고 씻을수 없다.

콩크리트장벽은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의 전초선으로 되고있다.

600여리 장벽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여 북녘을 향시적으로 겨냥하고있는 수많은 중무기들, 선제공격작전에 신속히 비용할수 있게 꾸려놓은 여러가지 구조물들로 하여 콩크리트장벽은 북침공격의 출발진지로 되여왔다.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이 콩크리트장벽을 그 무슨 《남침위협》을 막기 위한 《반랑크차단물》이라고 우겨왔지만 그것은 완전한 생억지이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이 장벽을 거점으로 하여 북침을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심지어 장벽해체와 관련한 내외의 강력한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불순한 모략시전들을 련이어 꾸며내기까지 하였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교한 력사는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물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콩크리트장벽은 온갖 반통일적장애물들의 대표적상징, 대결시대의 오물로서 그 제거는 머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콩크리트장벽에는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응결되여있다.

콩크리트장벽구축의 장본인인 동시에 그 적극적인 옹호자인 미국은 조선반도를 거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자기의 전략적목표로부터 콩크리트장벽의 해체를 극력 반대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보수세력의 장벽유지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범죄적인 적대시압살정책의 연장이다.

장벽이자 곧 대결과 전쟁을 의미한다. 콩크리트장벽이 아직도 존재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야망이 얼마나 부리�은것인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현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금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콩크리트장벽을 통가하는 북남대결의 장벽을 계속 쌓고있다.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온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환영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면서 극악한 반통일대결론인 《비핵, 개방, 3000》을 들고나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한편 그 무슨 《급변사태》나발을 집요하게 불어대며 《비상통치계획》이니, 《통일대박세연구》니 하는따위 의 제재대결각본들을 짜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들을 발광적으로 벌려댔다. 올해에만도 모략적인 합선침략시전과 연평도포격시전을 일으켜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거침없이 몰아갔다.

최근 조선서해의 연평도일대에서 두차례나 일어난 무장도발사건들은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면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지금 괴뢰들은 그 누구의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연평도일대를 비롯한 우리의 코앞에서 무모한 군사적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려고있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전면전쟁의 불길을 터쳐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다.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군사적대결기운만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현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콩크리트장벽을 통가하는 또 하나의 분렬과 대결의 상징이며 보수패당이야말로 영구분렬의 불리적차단물을 쌓아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군사파쑈독재자들을 방조먹는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보여준다.

콩크리트장벽과 반통일장애물들을 제거하는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을 원하느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 분렬을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국토와 민족을 갈라놓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불리적, 정치적, 제도적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북과 남사이에 자유로운 래왕과 대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북남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만일 남조선보수패당이 지금처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분렬의 장벽을 계속 쌓으면서 동족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거치놓이 분렬과 대결의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

재 로 동 포 들 기 념 모 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연해한강고등련이 22일 아트름시에 있는 조선문화센터에서 기념모임을 가지였다.

여기에는 로씨야련방 연해변강고등련 일군들과 동포들,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와 령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아트름시행정부 일군들이 모임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 박평천 로씨야련방 연해변강고등련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 는 경 애 하 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신군혁명령도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쳐물리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오늘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한편 참가자들은 모임장소에 전시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도서들을 돌아보았다.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 기념강연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24일 기념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강연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독립국가협동제작여위원회 일군들과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는데 대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다》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선군혁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신데 대하여서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대를 면면히 하여 이어놓으시여 우리 민족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행운을 지니게 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콩크리트장벽이 해체를 요구

체 스 꼬 신 문 의 글

체스꼬신문 《할로 노비니》 22일부가 《민족분렬의 상징—철근콩크리트장벽》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12월 29일은 남조선당국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대규모철근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지 3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래전부터 북남사이의 자유로운 통행과 협력을 위해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할것을 주장해오고있다.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 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조선반도영구분렬책동의 산물이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1950년대 조선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군사분계선은 오래동안 조선민족에게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수많은 마을들, 북과 남을 련결하는 크고작은 도로들과 철길들이 끊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여 여러 분야에서의 련계와 대화들이 실현되였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실지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바란다면 이 대규모철근콩크리트장벽부터 지체없이 해체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불 레 찐 《통 일》 12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협회가 불레찐 《통일》 12월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김정일의고사방관, 무적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12월 24일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고 하면서 글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선군조선은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레찐은 《군전심위성에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업적》이라는 표제아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전군조직을 받들어 나라의 정규무력건설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해 적잖히였다.

불레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한민국육리공장과 강서약수공장, 함경북도안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들과 함께 조선인민군제34차 군부자에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판함하신 소식 등을 편집하였다.

불레찐은 이밖에 조국소식, 국제소식들을 실었다.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를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20일 론평을 발표하여 괴명박역적패당의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를 단죄하였다.

론평은 민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리명박 《정부》가 연평도일대에서 포사격훈련을 강행한데 대해 비난하였다. 전체 민족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리명박 《정부》의 군사적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지금이라도 리명박 《정부》가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유지를 위한 허튼 말장난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가 국도로 악화되고 조선반도에 험해한 대결국면이 조성된 원인이 마치 이전 《정권》이 우리와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고있다.

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대국민담화》라는데서 지난 11월의 연평포포격사건이 이전 《정권》의 《네발정책》으로 초래되였다는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날 그는 이전 《정권》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저들에게 들어온것은 《백개날과 《천단》 호사전에 이은 연평도포격》이라는 실로 허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역도와 폭도를 맞추어 보수언론들도 현 조선반도의 긴장은 《이전 《정권》들의 책임》이라는 억지스러운 론리를 들고나오고있다.

북과 남이 함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깡그리 말아먹다 못해 외세와 작당하여 《천단》호사전과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사상류례없는 특대형반공화국도발사건들을 조작해낸 장본인들이 조선반도에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된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고있으니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 각계는 보수패당의 이러한 나게된 책임전가놀음을 조소하면서 연평도사태는 오히려 현 《정권》이 이전 《정권》들과 짜 맞춰 북과 소통하지 않고 인도주의적협력사업마저 중단시키는 등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한 연장선에서 빚어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자가 《안보위기》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남조선집권자와 《대국민담화》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였다.

《현 집권세력은 마치 이전 《정권》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연평도사태를 불러온것처럼 모호하게 말을 흐리고있다. 그러나 현 《정권》을 련이후 인도적지원을 포함한 주요대북화해협력조치들이 중단된지 이미 3년에이다. 리명박의 언급은 현 《정권》이 한 일은 싹 제놓고 이전 《정권》들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부정직하다.》

여론의 눈과 귀는 결코 어둘지 않다.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파국에 처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에 빠져있는것이 보수패당의 국단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때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여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다그치면서 관계개선을 도모해가던 시기에는 도저히 있을수 없었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3년전 남조선보수패당이 이전 당국자들과 우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놓은 모든것을 부정하면서 대결정책을 들고나올 때 벌써 예상되였던것이다.

남조선의 이전 《정권》시기에도 북남사이에는 일련의 의견상이로 곡절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한 쌍방의 리해와 호상접촉 그때마다 순조롭게 풀리였으며 북남관계는 부단히 전진하였다.

그 력으로 남조선도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여 있었다.

그러나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출현으로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은 모조리 중단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급격히 고조되였다. 그것이 올해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이러한 긴장격화사태의 책임을 이미 들러선지 3년이나 되는 이전 《정권》에 돌림우는것은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공화국은 언제나 백승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은 25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 20일 조선서해에 연평도일대에서 또다시 수천발의 총포탄을 발사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군사적도발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군사적으로 에워싼 일대에서 의도적인 선불질로 북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파산에 직면한 대아시아정책과 대조선전략을 수습해보려는데 목적을 둔 모략극이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고 누가 전쟁의 도발자인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의 화근인 리명박역적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재중동포들은 온 겨레와 함께 미국과 그와 결탁한 괴뢰패당의 음모를 짓부시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있는것은 선군의 기치 높이 드신 위대한 백두혈통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켜주신 덕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주실분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도를 높이 받들 때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공화국은 언제나 백승할것이다.

로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전라북도지역 7개 페스회사의 로조들이 22일 전주시에서 집회를 가지고 로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로동자들이 민주로조사수와 로동의 기본권리쟁취를 위해 15일에 총파업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당국이 업주측을 비호두둔하면서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로조탄압에 광두하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리명박독재 《정권》이 아무리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로조탄압에 광분하여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페스로동자도 인간이다!》는 글이 적힌 선전판을 들고 《파업투쟁 승리하자!》, 《민주로조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행진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

오늘도 위훈에로 부르는 참모습

희천발전소건설 채취공업성려단 2대대 돌격대원들이였던 림광철, 최영운동무들

지난 10월 15일 밤, 돌길공사를 맡은 채취공업성려단의 2대대 막장은 그 어느때보다 불꽃고요하다. 혁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계기로 앙양된 기세드높이 새로 조대해 진입하여 합천전투를 벌리던 1중대 2소대원들의 막장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확장된 천정의 한복구간에서 잔돌과 흙부스레기들이 떨어지는것이다. 지적질빛들이 천정을 훑는 순간 직경이 한발이나 넘는 돌들이 한족으로 기울며 떨어져내리려 하고있었다.

그때 《비키라!》하고 웨치며 버럭운반전투를 벌리는 대원들속으로 뛰여드는 두 사람이 있었다. 소대장 림광철동무와 천공위치를 가늠하며 막장단면에서있던 최영운동무였다. 그들이 제각기 대원들을 힘껏 밀쳐버리는 순간 꽝— 하는 소리와함께 큰돌이 떨어지였다.

순간과 위험은 가셔지고 교대에 진입했던 7명의 대원들은 다 무사했으나 림광철, 최영운동무들은 대원들에게 돌피해 인체 영영 눈을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어느 한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림광철, 최영운동무들이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온것은 지난해 4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풀기 일념안고 남먼저 전설장으로 한원한 그들은 공사첫날부터 대상작업에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 쏟아부었다.

28살의 림광철동무는 소대장, 청년돌격초급단체비서로서 도당령도로와 숙소진설, 작업장사태에는 물론 기본물길굴도정굴진, 확장공사태에도 언제나 소대의 앞장에서 뛰군하였다.

힘든 작업대상들인 조구장, 비력하차장공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은 그는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돌이대며 련속전공, 련속말파를 하였다. 3일이 걸려도 하기 힘들다는 작업과제를 돌파 하루동안에 해제했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언제나 소대가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이끌었다.

그의 일욕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 7월 이윽한 단위외의 관통시각을 며칠 앞둔 어느날 말파가스가 채빠지기도 전에 림광철동무가 막장으로 달려올수가는것이였다. 영문을 모르고 뒤따라 들어간 중대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사연을 묻자 그는 새 작업방법에 의한 말파조를 한시바삐 가늠해보고싶어서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하루뭘러 공사를 한꿈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고 막장에 뛰여든 림광철동무의 모습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그는 한대원이 앓을 때에는 밤중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치료에 좋은 약초를 구해놓고 소대의 막내대원이 수술을 받을 때에는 밤새 수심피길을 오가며 산골과 어려가지 영양식품을 마련해놨으며 또 한 대원이 군인민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5일간이나 코대를 마친 다음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를 도와주었다.

집에 편지를 보낼 때면 늘 자기 소대에 앓아 누구는 병원에서 방금 퇴원하여 몸이 허약한데 천기를 회복할수 있는 보양제를 보내달라는것, 또 소대의 부모없는 한 동무가 생일을 맞게 되는데 안해와 어머니가 소대로 찾아와 부모처럼 생일상을 차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들을 적어보내군 한 림광철동무, 지난 5월초 사경굴진이 마감단계에 들어서던 때에 미끄러져내려는 칠목을 함하여 지체대를 돌려리고 뛰여들어 여러명의 대원들을 구원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참으로 드거운것이다.

하기에 림광철동무의 어머니와 안해 조종현동무는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 지원의 걸음을 옮겼고 현장에서 연 15일간이나 버럭운반전투도 벌리며 소대원들과 한식솔처럼 지내기도 하였던것이다.

최영운동무 역시 소대의 유능한 작업장으로서 일밖에 모르고 드거운 동지애를 지닌 인간이였다.

그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때 사경, 도경굴진과 확장공사에서 떨치였던 작업공의 때를 남김없이 보여줄 마음안고 지난해 6월에 진행된 도양평도로개확공사와 숙소진설, 빌목작업에서 지지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졌다.

그는 물길굴공사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풀려는 한마음안고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지기의 기술기능을 최대로 발휘하였다.

특히 8전의 함려직인 천풍배치와 낡파방법을 창안도입하고 여러명의 착암꾼을 키워 수평보정사작업과 압축기장과 전양기장진설을 위한 굴진, 기본물길굴관통을 위한 투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욕심이 남다른 그였기에 지난 10월초중대지휘관들의 추궁을 받고서야 려단굴의소에 입원하였고 열흘도 못되여 남몰래 군의소에서 빠져나와 착암기를 틀어쥐고 소씨 전투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는 길에 한몸다 바치려는 그들의 숭고한 지향은 오늘 그들의 가족들의 뜨거운 마음에 메만들며 군세게 이어지고있다. 일마전 림광철동무의 안해 조종현동무와 그의 남동생 조충제, 매부 최광철 그리고 최영운동무의 안해 김영희동무들이 들겨대로 한천하여 전투장을 지켜섰다.

위기일발의 순간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한 림광철동무와 최영운동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으로 달려온 가족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오늘 남녀대와 려단은 물론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전체 돌격대원들에게 참된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를 감동깊게 새겨주며 더 높은 위훈장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당의 혁신정책을 결사보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면 못해낼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의 놀갚은 호소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탕았다. 종업원들속에서 혁신적인 방도들이 나왔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주고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초급일군들이 분발하였고 대중이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며칠후 종축장정문앞에는 회한한 전경도가 나붙었다. 지배인이 밥을 새워가며 그린것이였다. 그는 이 제기를 통하여 종업원들속에 제일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일이 없다는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 밤을 꼬박 밝혀가며 전경도를 그리였다. 그리고 지방에 흔한 전설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새키울지상산이 급속히 늘어갔은 물론 한해에 많은 새끼토기가 생산되였다.

먹이작물밭을 조성하고 비배관리를 짜임있게 진행하여 종축돼지의 먹이를 자두어 먹이공제이를 해결한것도, 새끼돼지와 토끼생산을 정상화하게 된것도 다 당의 혁신정책 관철을 위해 늘 머리를 쓰면서 이악하게 일하고 있는 지배인 리용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혜깊은 투쟁기풍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였고 생산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일어났다.

엄 광 철

숙천군농업경영위원회 종축장 지배인 리용일동무와 종업원들

제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사업을 주춧대우고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일군들의 책임성과 혁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종축장지배인으로 일하게 된 리용일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종축장을 더 잘 꾸려 당의 축산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자면 해야 할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종축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하고 종축마리수를 늘여 군의 축산물생산에 더 잘 이바지하겠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하나하나 설계하였다.

그는 먼저 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집짐승우리들을 새로 건설하고 종축돼지마리수를 대담하게 늘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현재 있는 종축돼지들을 판리하는것도 돌이 드는데 집짐승우리건설은 좀 미루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당의 축산정책을 결사보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면 못해낼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의 놀갚은 호소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탕았다. 종업원들속에서 혁신적인 방도들이 나왔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주고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초급일군들이 분발하였고 대중이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며칠후 종축장정문앞에는 회한한 전경도가 나붙었다. 지배인이 밥을 새워가며 그린것이였다. 그는 이 제기를 통하여 종업원들속에 제일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일이 없다는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 밤을 꼬박 밝혀가며 전경도를 그리였다. 그리고 지방에 흔한 전설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새키울지상산이 급속히 늘어갔은 물론 한해에 많은 새끼토기가 생산되였다.

먹이작물밭을 조성하고 비배관리를 짜임있게 진행하여 종축돼지의 먹이를 자두어 먹이공제이를 해결한것도, 새끼돼지와 토끼생산을 정상화하게 된것도 다 당의 혁신정책 관철을 위해 늘 머리를 쓰면서 이악하게 일하고 있는 지배인 리용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혜깊은 투쟁기풍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였고 생산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일어났다.

엄 광 철

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미국의 침략적 《반테로》 전략

올해에도 미국은 이른바 《평화》와 《안정》을 제창하면서 침략적인 《반테로》전략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테로는 수그러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미국이 이른바 《평정》을 운운하는 이라크에서는 종족간, 교파간 알륵파 모순에 의한 테로의 악순환이 지속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태는 더욱 악화하다. 최근시기 이 나라에서는 소규모, 대규모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자폭공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뿐만 파키스탄에서 자폭공격에 의한 피해가 증대되였다. 이것을 기화로 이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이 명렬해졌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이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전》을 선포한지도 9년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이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강점할 때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미국의 《반테로》전략실행의 진의도에 대해 다는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반테로》전략의 침략성, 범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미국이 전략적요충지들과 주요자원지대들을 군사적으로 장악, 지배할 목적밑에 《반테로전》을 개시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올해에 미국의 《반테로》전략이 힘에 기초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 군사적간섭의 도구라는것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년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이 보다 강렬해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식이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지배야망실현책동에 장애로 되였다.

교활한 미제는 기만적인 《반테로전》을 구실로 올해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지배주의책동의 도수를 높이였다. 미국이 대이란적대시정책을 강행실시하면서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빙퉁시하고 제재와 압력, 정부전복책동을 강화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은 이란을 궁복시키고 제압함으로써 중동지역의 통부한 헌유지원을 통제로 바고았으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할것을 노려였다. 이것은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제압하고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확장하며 세계를 위력하려며 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전문가들이 이라크에 헌유자원이 많지 않았으면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이라크전쟁을 《헌유전쟁》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올해에 《반테로전》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골몰하였다.

이라크에서의 장기전에서 단단히 쓴맛을 본 미국은 올해에 이라크에서 미군의 일부 무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이 나라에 대한 《정정》정책을 《단념》하는척 하였다. 딴 속심이 있어서였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근 8년간에 걸치는 강점정책을 통하여 이 나라에 종족간, 교파간의 불화의 씨를 뿌려놓았다. 그것은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의 좋은 구실로 되고있다. 이라크에서 반대파세력들인 시아파와 순니파사이의 알륵파 모순을 잘 리용하기만 하면 내정간섭과 미군의 장기주둔, 헌유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 박탈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실지로 미국은 그런 수법을 썼다. 이로 하여 이라크에서는 올해에 반대파세력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와는 다른 건술을 썼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피퇴정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에 계속 발을 붙이려고 획책하였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피퇴정부의 요청형식으로 미군주둔하의 나토무력의 항시적인 주둔을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올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소탕》과 정부와 반정부세력사이의 《정화협상》을 동시에 추진한것은 그에 따른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 하고있다.

올해에 《반테로》의 미명하에 미국의 인권유린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에서 미군은 올해에 《테로분자수정》을 구실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였다. 미국은 올해에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군사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사상자가 났다.

얼마전 미군이 파키스탄의 북부와 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돌이밀어 미사일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5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파키스탄의 서북부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였다. 미군의 인권유린만행은 파키스탄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략은 올해에 실패와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그렇된 일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미국이 불순한 목적밑에 빙희적인 《반테로》전략을 강행하여 경쟁적수들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제압, 압박하는것으로써 세계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획득하려 하지만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지난 시기 타민족말살을 노려고 침략과 전쟁, 략탈을 일삼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결과적으로는 망하고말았다. 력사는 타민족에 대한 영원한 지배란 있을수 없으며 침략자들은 례외없이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한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미국이 지난 기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에 전문학적인 역수에 말하는 자금을 퍼부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하여 미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처하여 허우적거리고있으며 미국의 지배적지위는 전례없이 약화되였다. 올해에 미국은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실제한 이라크《평정》전략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평정》전략도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이 확실해졌다. 올해에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개시에 년중 기록적인 미군사망자를 냈다. 이런 거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주도하의 나토군과 탈리반세력사이의 전투가 보다 치렬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이 올해에 《반테로전》의 기본무대를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고 이 나라에 병력을 증파하여 군사적힘을 강화하였으나 별로 소득이 없이 손실만 크게 보았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불필요한 전쟁》,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으로 간주하며 반기를 들고있다.

미국의 《반테로》전략에 끌려들었던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서 발을 빼려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이 전략을 비난, 배격하는 움직임이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반테로》전략이 곤경에 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파탄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빙희적인 《반테로》전략은 미국의 파멸의 운명을 예고해주고있다. 미국은 올해 《반테로》전략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리성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 택 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잡보자신문과 기네방송의 기념보도를 하였다.

잡보자신문 《인민》 21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시는 녀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마다 12월 24일이 오면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정숙녀사께서 쌓으신 업적을 되새겨보군 한다.

녀사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신 첫 시기부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시였다.

김 정 숙 녀 사 는 김일성주석께 끝없이 충직한 헌위전사이시였으며 유능하고 뛰여난 군사정치활동가이시였다. 녀사께서 이룩하신 가장 커다란 혁은 주석의 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도록 하신것이다.

20일 기네파지오방송은 백두산녀장군께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전군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무력건설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조선의 전군사열 기신 김정숙녀사의 업적은 필승불패를 떨치는 조선인민군의 위용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신군정치연구협회는 1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정숙녀사의 위대한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백두산녀장군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옹호하고 대를 이어 빛내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값은 관심을 돌리신데 대해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백두준비위원회에서는 홈페지를 발행하였다.

홈페지은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진들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홈페지은 《조선인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려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백두산녀장군께서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변을 목숨으로 지켜내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신데 대하여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하시였을 뿐아니라 절사한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의 미래를 책임지실 위대한 령도자로 키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공적은 불멸할것이다.

홈페지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서와 조선로동당이 65년간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 ※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신문들이 14일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나룬 카타》는 《녀사의 넋》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해방후 조선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인민들을 새 사회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녀사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녀사의 넋원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

《네르파》는 《미래를 풀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숙녀사의 생애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사랑의 한생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녀사께서는 아동단사업을 맡아보시였다.

녀사께서는 해방후에도 어린이보육교양과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나라찾은 싸움에서 희생된 애국자, 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을 위하여 창립된 만경대혁명학원에도 녀사의 크나큰 로고가 깃들어있다.

녀사께서는 조선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된 조선이 짧은 기간에 훌륭한 교육토대를 마련하고 교육사업을 진행할수 있은데는 녀사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다.

본사기자

중국 당풍 및 청렴정치건설강화조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근 《당풍 및 청렴정치건설책임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고 이것을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하달하였다.

통지서는 이 규정이 당풍 및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기초적법규로서 과학적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통지서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당의 집권능력을 높이고 집권적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지에서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당 제1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4차, 5차 전원회의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결부하여 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적단합을 호소

베바논대통령 미셸 쑬레이만은 최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민족적단합을 공고히 할것을 전제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베바논의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국내정치세력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베바논인민은 나라의 안정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다고 하면서 그는 더는 그 어떤 새로운 내전이나 분쟁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나이제리아가 20일 월도, 통신부문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네팔은 무역을 확진할데 관한 방책각서에 조인하였다.

—남아프리카와 앙골라가 14일 하부구조개발,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5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앙골라대통령의 남아프리카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몽골은 국경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나라 국가안전기관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얼마전 테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쎌남과 중국은 문화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음모책동을 규탄

이란국방무력병참상이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음모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이란핵물리학자대 테란 암살사건의 배후에는 유태복고주의자들과 서방나라들이 있으며 그 목적은 이란과학자들속에 공포심을 조장시켜 자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방나라들이 침묵을 지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런 암살행위를 비난하지 않는자들은 범죄자들과 공모한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지질탐사성과

중국 운남성에서 최근 3년동안 지질탐사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성에서는 50만이상의 연, 야연매장지 4개, 20t이상의 금매장지 3개를 발견하였다. 또한 석탄매장량을 3억이상 새로 확보하였다.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

몽골에서 2020년까지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2일 몽골원자력국은 국내우라니움자원에 의한 연료를 리용하게 될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나라의 전력생산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수력발전소 건설

만마의 만말라이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여 15일에 조업하였다.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79만kW이다.

발전소의 완공으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공업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리비아의 수도 라끄룹스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위를 단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21일 중동평화회담분위기를 파탄시키는 이스라엘의 무모한 행위를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강화하여 팔레스티나민족속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가혹이나 결렬상태에 있는 중동평화회담을 완전히 파탄낼로 몰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군사적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고 강조하고 평화회담이 파탄되게 된 책임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져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11월에 실업자수가 약 27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2만명정도 증가한 것이다.

자연피해

볼롬비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최근 몇주일째 무더기비가 계속 내려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이 나라 적십자사가 밝힌데 의하면 무더기비로 6월현재 174명이 사망하고 22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9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1821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150만평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수천ha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란에서 미싸일시험발사

이란에서 얼마전 《FM-80》과 《파르어》미싸일개발형들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전기탐학장치들과 레이자거리측정기들이 설치되여있는 이 미싸일들은 그 어떤 전파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목표를 타격할수 있다.

또한 신형비행기들을 추적하여 소멸할수 있는 《네트싸드》중거리미싸일개발형도 시험발사되였다.

최근 이 나라 군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범죄의 란무장—자본주의세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감행되여 사람들이 헤아리도 미up놓고 살아갈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사적재산주조로 만연되고있는 총기류빙퉁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 11월 19일 일리노이스주의 시카고시에서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월초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에서 2건의 류혈적인 총기류빙퉁사건으로 5명의 중상자가 났다.

도이췰란드와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날로 짙어가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학생들이 학용품이 아니라 총기류나 칼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학교에 다니는가 하면 언제 봉변을 당할지 모를 위구심에 사로잡혀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나타나 교정이 말그대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희비극들이 벌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총기류를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매일 평균 10여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오스트랄리아의 소학교학생들속에서 흉기를 가지고있다가 적발된것이 올해에 공식등록된것만도 200건이상에 달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살인피해행위가 결코 근절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인간을 정신육체적불구자로 전락시키는 마약범죄도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지난 11월 한달동안에만도 미국의 남부와 서남부지역에서 마약밀수통로와 비밀마약저장고들이 적발되여 불수쳐리된 각종 마약은 무려 48t이상에 달한다.

뷔르기에의 이스탄불시에서 지난 2년동안에 15.3t의 헤로인과 6.7t의 하쉬, 319kg의 코카인 그리고 많은 각성제가 압수되고 10만여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일마전 이탈리아의 깔라브리아지역에서는 10t의 코카인이 불수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의 빅토리아주에서는 마약작물 6000그루가 적발되였다.

이와 같은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자본주의사회야말로 온갖 범죄의 란무장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침략자의 이중적인 태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일삼으면서 《부정부패》라는 소리를 곧잘 외워대군 한다.

최근 미국의 상원 의원이 한주일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두차례나 방라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훈시질을 하였다. 그는 《모자 높은 통치기관을 증폭시키지 못하는 정부를 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미국회 하원 의원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정부 관리들과 마약범죄두목들, 테로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리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단 한푼의 자금도 아프가니스탄을 《원조》하는데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회적혼란과 부정부패행위는 다름아닌 미국이 감행한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주요하게 기인된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부정부패행위가 이 나라 정부의 부능력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 의원은 《미국의 정책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만연되고있는 부패행위와의 싸움에서의 실패》를 놓고 아프가니스탄정부를 자주 비난해왔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정객들의 이러한 비난에 아프가니스탄이 반발해나서고있다. 미국회 상원 의원이 카불을 방각하여 부정부패와 관련한 일장 훈시를 하고 간 후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은 미국인들과 그들에 의해 고용된 성원들로 꾸려진 사정안보회사들이 부정부패와 강탈, 직권랑용행위를 일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사정안보회사들에 수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업을 중지시키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2개의 《부정부패라격그루빠》인 주요법죄특수그루빠와 조사그루빠가 활동하고있다. 한때 이 그루빠들은 부정부패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아프가니스탄국가안전리사회 행정책임자를 주요대상으로 삼았었다.

지난 7월 그는 뵈골랑위로 제포되였다. 그러나 그는 인차 석방되였다. 그가 석방된 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그가 미중앙정보국으로부터 보수를 받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된데는 미중앙정보국의 손길이 뻗쳐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외신들은 그와 미중앙정보국사이의 관계는 미국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정책에서의 모순점들을 드러내보이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이 앞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할것을 호소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자들을 비호두둔해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하였다.

결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기만적인 《해방자》, 침략자로서의 그들의 진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사기자 조성혈

적들의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규탄배격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그 무슨 《호국》훈련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한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지난 11월 23일 조선서해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육안으로도 서로 마주보이는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포탄을 퍼부으며 전쟁광기를 부린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이였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지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남조선괴뢰들을 부둥켜안고 비호두둔해나섰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군사도발행위의 진상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하기에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막후조종과 부추김밑에 감행된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다.

브라질공산당 인터네트홈페지 《메르텔유》는 《조선인민군이 남조선의 거짓말을 까밝혔다》라는 제목으로 남조선의 이번 군사적도발이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들을 조선측 령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남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고 모험을 일삼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까밝히고 조선의 혁명무력은 남조선의 군사적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여러 정당,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적행동들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지자 조선서해에서 남조선괴뢰군과 련합훈련을 벌려놓고 여기에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를 참가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포탄한 범죄자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에서 응당한 포탄을 맞을 대신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우리 나라 수역을 목표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함으로서 《북방한계선》에서의 우리의 신성한 령해를 침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전면도전으로서 국제사회계의 심심한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아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괴뢰들이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최대의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이 계단식으로 가일층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남조선이 계획된 포사격훈련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모든 유관측들이 최대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정세를 격화시킬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아외무성 부상 보로달진도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포사격훈련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청년보》는 지난 8일에 실은 글에서 남조선과 일본은 《주권》을 내세우면서 《북방》을 고집하고 《조지 워싱톤》호를 참가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포탄한 범죄자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에서 응당한 포탄을 맞을 대신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우리 나라 수역을 목표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함으로서 《북방한계선》에서의 우리의 신성한 령해를 침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전면도전으로서 국제사회계의 심심한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아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괴뢰들이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최대의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이 계단식으로 가일층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남조선이 계획된 포사격훈련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모든 유관측들이 최대의 자제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여 정세를 격화시킬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아외무성 부상 보로달진도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포사격훈련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청년보》는 지난 8일에 실은 글에서 남조선과 일본은 《주권》을 내세우면서 《북방》을 고집하고 《조지 워싱톤》호를 참가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포탄한 범죄자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 연평도포격사건에서 응당한 포탄을 맞을 대신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우리 나라 수역을 목표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함으로서 《북방한계선》에서의 우리의 신성한 령해를 침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전면도전으로서 국제사회계의 심심한 우려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아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괴뢰들이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최대의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이 계단식으로 가일층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남조선이 계획된 포사격훈련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국제사회계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고 자중할데 대신 국제의 숱한 비호밑에 연평도일대에서 또다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국제계탄의 와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과 공모하여 남조선이 지난 20일 연평도에서 진행한 포사격훈련은 조선의 군사적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미국이 파산에 직면한 대아시아정책과 대조선전략을 수습해보려는 음모의 산물이며 통치위기에 직면한 남조선당국과 지략된 군부의 제편을 살려기 위한 선전용도밖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평도사태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강경립장을 선언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로씨아의 이타르—따쓰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미국의 AP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출판보도들이 전하고있다.

연평도사태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인 태도와 립장은 국제적지지를 받고있는 반면에 적들은 수세에 몰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현실을 �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ㄱ-0123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독자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